

동농 이해조와 포천문학

이해조문학회 월례회의서 정기모 회원 발표

동농 이해조 선생의 문학을 연구하는 단체인 이해조문학회(회장 박정근)가 7월11일 오후4시 영북면 산정리에서 '동농 이해조와 포천문학'을 주제로 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발제에서 정기모 회원은 "이해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포천이 낳은 인물이며 그의 여러 작품은 우리시대에 새롭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구한말 작품으로 국민들을 깨우치고 애국계몽활동의 동기를 부여했으며 특히 봉건제도를 비판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개선 등 근대사상을 일깨운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 후에 박정근 회장은 "문예대학 문학기행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동군은 좌파사상을 의심받아 수년간 옥고를 치른 고 이병주 작가의 문학관을 수습 역원을 들여 건축하고 그의 작품을 다각도로 연구하게 하고 있다"고 밝히고 "동농 이해조 선생은 친일진상조사위원회에서 친일의 허물을 벗겨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포천 시민들의 보수적 불만으로 동농 이해조 선생의 문학성을 사정시



동농 이해조 선생의 문학을 연구하는 단체인 이해조문학회가 7월11일 오후4시 영북면 산정리에서 '동농 이해조와 포천문학'을 주제로 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키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원들은 박 회장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포천민들이 의지를 결집하여 지역에서 태어난 훌륭한 작가들을 기념할 수 있는 문학관 건립으로 포천의 정신과 문화를 살찌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독후감대회를 실시한 결과 이해조 선생 작품이 너무 어렵고 읽기가 힘들다는 여론에 따라 올 사업은 동농 이해조 선생 작품 중에서 친근한 3~4개의 작품을 현대어로 번역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달에하기로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詩

기도

하느님!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구상의 6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는
특별한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많은 텐데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쓰임 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저 자신을 너무 모르는 바보의 생각이 아닌가고
자문해 봅니다.
하느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어디에다 쓰시겠는가하며
저 자신에게 실망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
혹여나 부족한 사람도 필요하시면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이 필요하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혹시 바보라도 필요하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에 대한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저는 부족하지만 당신의 것입니다.



이 중희 시인
인근문학협회 포천시부회장



기사제보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휠체어를 탄지 꼭 24년째 되는데 산을 기본지가 어렸을때 앞산 뒷산 빼고는 기본적 없는 제가 휠체어를 타고 800고지 이상을 처음 가보아서 너무도 고맙고 신기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난생 처음 친구들과 선배님을 통해서 지난 7월12일 전북 완주군에 있는 대둔산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가파른 철 계단을 오르고 또 오르며 들고 가는 친구들과 선배님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한 참 너무도 고맙고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봉우리들과 흔들리는 구름다리를 접해 보고는 정말 환상에

찾아서 무어라 말 할 수 없는 회열에 빠졌습니다.
휠체어를 탄 제가 구름다리에 있는 것을 보고 많은 등산객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며 의아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도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한량도 없었지만 너무도 좋았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하기까지는 그 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꿈에도 해보지 못할 대둔산 가파른 철 계단을 오르고 또 오르며 들고 가는 친구들과 선배님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한 참 너무도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고 아직도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고 고마워 해야 할 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 다시 한번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송기태

내촌면 주민자치위원회 발족



내촌면주민자치위원회는 7월9일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내촌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영대)는 7월9일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역적으로 남양주생 활권인 내촌면은 47면 국도의 포천시 관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포천시의 의지에 따라 내촌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날 발족식을 갖고 출범한 내촌면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김영대 ▶부위원장 김경심 이철호 ▶간사 양훈근 ▶분과장 양양갑 김선철 최영훈 조광연

김미경(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

시민 사랑 받는 소방행정 추진 노력

임정호 제7대 포천소방서장 취임식



포천소방서 제7대 서장에 임정호 경기도소방학교 교수운영과장이 취임했다.

임정호 포천소방서장은 1990년 소방간부6기 출신으로 입문해 하남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송탄소방서 방화과장, 경기도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을 거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해 경기도소방학교에서 교수운

영과장으로 근무하다 이번에 포천 소방서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임정호(사진·45) 포천소방서장은 "도농 복합도시인 포천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안전한 포천, 편안한 포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천시민은 물론 안전의 주체인 우리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모든 것을 경주하여 시민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소방행정 추진에 노력하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조성빈 기자 csbkj@hanmail.net



포천소방서 제7대 서장에 임정호 경기도소방학교 교수운영과장이 취임했다.

"노래하듯 쓰는 장을 열어 주셔서 感謝"

김순희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 詩人 등단

김순희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이 월간스토리문학 7월호 시 부문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등단한 김 시인은 ▶하라산을 오르며 ▶기억은 여전히 ▶차한잔 등의 작품을 발표해 배인환 편집장 최현근 시인으로부터 시를 통해 새로운 꿈, 새로운 세상과 만나는 통로로 삼기를 바라는 기쁨으로 추천한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김 시인은 당선소감을 통해 "자신만의 생각을 나열하듯이 노래하

듯이 써 가는 저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차게 발걸음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순희 시인은 포천문인협회, 독바위문학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건강보습공단, 국민연금공단 웃음치료강사,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포천문예대학 제1.5기을 수료했으며 현직은 포천 내촌우체국에 근무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순희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이 월간스토리문학 7월호 시 부문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자유기고

어느 날 지나가던 나그네가 물병이 하나를 주었다. 그것은 하찮았지만 그런 평범한 물이었다. 그런데 그 물이 운이 좋았다. 주인을 잘 만나서 살고 닦아졌다. 지금은 누가 보아도 잘 다듬어진 그런 투자가치가 있는 물로 변화해지고 물은 주인을 잘 만나 날마다 갖고 닦고 사랑해주어 지금에 이른 것이다.
아름다운 보석 같은 물들이 우리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나고 그 중에 한사람이 되어 아름다운 물로 변하여 가고 있다.
우리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은 정말 잘 꾸여진 아름다운 물들이다. 여기저기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며 세상을 밝혀주고 있다.
세상이 변화하여 아름다운 보석 같은 주부명예기자들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는 큰 영광이요, 부담스러운 부녀회장이 되었다. 아파트 단지내 부녀회장이란 잘해도 욕먹는 자리요 못하면 더 욕먹는 것이 부녀회다.
예전처럼 부녀회가 집집마다 한 분씩 나와서 분리 수거하는 일을, 자질구레한 일은 이제는 사라졌다.
살기좋은 아파트, 화합하는 동네로 만들어 나가는데는 그런 아파트 주민들의 조공이나마 편하게

아름다운 보석

살아가시도록 도와주는 부녀회, 노인회와 동태포와 삼일월체가 되어 공경하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소문나는 그러한 아파트 그렇게 해보고 싶다.
직전 회장이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도 해결해 주셨고 부녀회원 모두가 화합으로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는 포천에서 명동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환경과 주차시설이 잘 되어있는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봉사정신으로 무장하고 남보다 솔선수범으로 나아가는 부녀회 명명백백하게 투명한 그런 부녀회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 모든 것들이 나 혼자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다.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루어져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모두 도와 주셔야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는 나의 나이나 나를 돌아볼 때에 남은 여성을 봉사로 살아야 아름다운 인생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 부녀회를 맡게 되었다. 이 모든 바램이 아름다운 만남으로 영원히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 뿐이다.



강 옥 자
주부명예기자단 이사

Essay

감자 캐는 날

"아침 먹었니? 감자 캐러 가자."전화로 들려오는 친정어머니 목소리입니다.
어제부터 내일은 감자 캐러 가야한다고 다짐을 놓으신 어머니가 서두르시는 모양입니다.
알았다고 대답한 후 쉰이 넓은 모자에 티셔츠, 추리닝 바지 차림으로 감자를 캐러 나갔습니다. 산동성이 군부대 땅을 임대하여 농사지는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산에 오르는 일은 늘 새롭습니다.
작년까지는 친정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일을 하셨는데 올해 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친정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제가 함께 일을 합니다.
"나는 감자하고 인연이 많은 가봐요, 우리 막내 남을 때도 탐스러운 감자가 주렁주렁 달린 줄기를 썩 뽑아드는데..."
산을 오르며 제가 말을 하자, "감자 캐는 꿈은 아들 낳는 꿈이야. 너도 아들을 낳았잖아?"
그런 것 같습니다.
막내아들은 아까 말한 대로 큰 감자가 주렁주렁 달린 감자줄기를 썩 뽑아드는데 꿈은 꾸었거든요. 그 꿈대로 저는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딸을 하나 보니 어느새 봄에 도착했네요.
올해는 감자가 유난히 많이 굵고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당연히 수확량도 훨씬 더 많죠. 하나하나 캐는게 즉시 크기별로 선별하여 바구니에 골라 담습니다.
큰 것은 큰 것끼리, 작은 건 작은 것끼리, 알이 아주 작은 것은 골임용으로 따로 모아둡니다. 이렇게 크기대로 구분해서 캐내야 하는 것을 처음에는 그렇게 할 줄 몰라 무조건 담았다가 나중에 다시 선별하는 낭패를 보기도 했습니다.

농사를 시작할 당시엔, 비교적 손이 덜 가고 고리너 등 동물의 피해가 적기 때문에 감자 농사가 제일 쉬워 너무 많이 심었고, 수확할때 우리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온 식구가 전정 치르듯 일을 했습니다. 그 덕분 올해는 지금도 감자를 먹지 않습니다.
감자 캐느라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전 감자만 봐도 지겹다는 겁니다.
캐은 감자를 바로 처분하지 않고 저장해서 더 비싼 값에 팔려고 하다가 썩어 나고 썩는 바람에 실패하기도 했구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었어요?
이제는 큰 욕심부리지 않고 그저 먹을 만큼만 심고 먹을 만큼만 수확하고 있습니다.
다 경험에서 나온 산 지식이라고 할까요?
아직 다 캐지도 못했는데 벌써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남은 것은 내일 다시 캐기로 하고 산을 내려오는 길은 너무나 가볍고 즐겁습니다.
뜨거운 여름 한 나절을 밭에서 땀 흘려 일하고 늦은 저녁 돌아오는 농부의 마음이 이런 거 아닐까요?
저는 욕심부리지 않고 사는 방법을 감자 농사를 통해 터득했고 그것을 통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이웃과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는 즐거움을 배웠습니다. 올해 감자농사는 대풍입니다. 감자를 캐는 제 마음도 풍년입니다.



김 미 경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

월빙 부사의(不思議) 이판사판(理判事判) 56

원리의 세계를 판단(判斷)하는 승려 이판(理判) 현실세계의 일을 판단하는 승려 사판(事判)

일을 한다. 방장스님이 불경(佛經)과 씨름을 한다면 주지스님은 불전(佛錢)과 씨름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가에선 이처럼 방장스님도 필요하고 주지스님도 필요하다는 말이다.
법법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지혜(智慧)와 자비(慈悲)다. 지혜는 깨우침과 통하는 것이고 자비는 배우는 것과 통하는 것이다. 깨우침을 주고 배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불법(佛法)이다. 돈오돈수(頓悟頓修)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다. 돈오돈수란 답박 깨닫고 답박 그 경지에 든다는 것이다. 답박 그 경지에 들지 못한다면 돈오돈수가 아니라 말이다. 돈오점수(頓悟漸修)를 말하는 사담도 있다. 돈오점수란 차차 깨달고 차차 그 경지에 든다는 것이다. 돈오돈수와 돈오점수는 이처럼 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우선은 깨우쳐야 한다. 깨우침이 앞서야 한다. 무엇을 깨우치는가? 원리(原理)를 깨우치는 것이다. 만법귀일(萬法歸一)을 깨우치는 것이다. 원리는 하나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다. 색즉시공(色即是空)이 공즉시색(空即是色)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다. 태극이무극(太極而無極)이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이라는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다. 색이 실제(實體)라면 공은 원리(原理)이다. 태극(太極)이 실제라면 무극(無極)은 원리이다. 이처럼 깨우침은 하나다. 진리(眞理)도 하나다. 동양(東洋)이 어떻게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실제(實體)는 하나다. 표현(表現)만 다를 뿐이다. 그들의 언어(言語)로 말하기 때문에 다를 뿐이다. 그들의 문자(文字)로 표현하기 때문에 달리 보이는 것 뿐이다.

색즉시공공즉시색'이란 사실을 사무치게 깨우쳐야 한다. '태극이무극'이요 '무극이태극'이란 사실을 사무치게 깨우쳐야 한다. 그 속에서 운회(輪廻)한다는 것을 사무치게 깨우쳐야 한다. 이 같은 깨우침에 전율(戰慄)해야 한다. 이 같은 깨우침에 함몰(陷沒)되어야 한다. 그 순간 우아일체(宇我一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와 나의 경계(境界)가 무너지는 것이고 너와 나의 벽이 무너지는 것이다. 자연(自然)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깨우침이 몰입 듯이 밀려오는 것이다. 그 순간을 위해 정진(精進)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생을 바치는 것이다.
깨우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규 임
인근형제복지회 회장

베 풀어야 한다. 행해야 한다.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행으로 그 경지(境地)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다. 배워는 삼오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적선(積善)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적선이라는 말은 주지스님과 잘 어울리는 말이다. 불법을 받들면서 현실을 좇아야 하는 것이 주지스님의 소임(所任)이기 때문이다. 스님도 공양(供養)을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나라를 초월(超越)해 불법만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나라도 지키고 불법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진여(眞如)를 다루는 이판보다 생멸(生滅)을 다루는 사판의 업보가 버거워 하는 이유이다. 생로병사(生老病死)를 다루는 사판의 일이 양도 훨씬 많고 배워야 하는 이유이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아시아 불교계의 스테디셀러(steady seller)였던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가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판사판이 모두 필요하다는 말이다.

